

여수시 “미래인재 여성농업인 육성”

여성농업인 역량강화교육 수강생 모집... 내달 3일부터 21일까지

스마트폰 활용반 · 농촌융복합산업 창업반 · 향토음식반 3개 과정



2019 여성농업인 전문 교육 사진

여수시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열어갈 여성농업인 역량강화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오는 2월 3일부터 21일까지 수강생 모집에 나선다. 금년 전문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활용반(기초반), 농촌융복합산업

창업반, 향토음식반 3개 과정이며, 모집인원은 각 반별 20명씩 총 60명이다.

교육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농업기술센터 교육장과 현장에서 진행된다.

응시자격은 여성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여성회원을 우선하여 선착순 모집하며, 응시인원 부족 시 농식품 산업 종사희망자(여성) 중에서 선발할 예정이다.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번호) 또는 농지원부를 구비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스마트폰 활용반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농산물 홍보·마케팅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구성되며, 농촌융복합산업 창업반은 창업관련 법률·세무 등 이론과 제품 포장 등 실습교육으로 진행된다.

향토음식반은 김영숙 전통식품 명인(농림축산식품부 전통식품 명인 53호)과 여수시우리음식연구회 정선심 회장을 강사로 초빙해 남도의 전통음식 만들기 이론과 실습교육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년 교육과정은 스마트폰 활용과 창업관련 법률지식 및 농업현장의 아이디어를 상품화하는 과정을 실습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지역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도현 기자

최형식 담양군수, ‘군민과의 소통’ 추진

민선7기 세 번째 ‘군민과의 열린 대화’ 추진

최형식 담양군수가 경자년을 맞아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을 통해 ‘행복도시 담양’을 실현코자 ‘군민과의 열린 대화’를 추진한다.

군은 민선7기 군민과 공감하고 군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소통 행정을 위해 오는 4일을 시작으로 7일까지 권역별로 군민과의 대화를 열어 군정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집중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화는 소규모 사업성 건의 위주로만 진행되던 기존 방식을 탈피, 주민들과 격의 없는 토론으로 읍·면 현안사업의 해결책과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등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참여행정 구현’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아울러 군민과의 대화 추진에 앞서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접수해 해당 부서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조치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하는 등 주민들의 숙원도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군민과의 열린 대화는 ▲4일 오후 3시 담양문화회관(담양읍, 월산면, 무성면, 금성면, 용면) ▲5일 오후 3시 고서문예회관(고서면, 가시문학면, 창평면, 대덕면) ▲7일 오후 3시 수북복지회관(봉산면, 수북면, 대전면) 순으로 진행된다.

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자치행정과 ☎061-380-3162로 문의하면 된다.

보성군, 개인지소세 신고 방법 달라진다

개인지소세, 이제 지자체에 신고·납부하세요!

보성군은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지방소득세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국제(소득세)와 같이 신고하였으나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득세는 세무서에 각각 신고·납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보성군은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제도에 맞춰 납세자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운영한다.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어 별도의 입력 없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세무서에는 신고·접수함을 비치해 지

방자치단체를 추가 방문하는 불편이 없도록 했고, 또한,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 시·군·구청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보성군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5월에는 군청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세무서 및 군청 중 한 곳을 방문해도 납세자가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세편의 제도 홍보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성=인규일 기자

나주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매달 10만원 지원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나주시는 ‘2020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 참여 희망자를 1월 28일부터 2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나 나주시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1년 간 월 10만원씩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나주시는 전라남도와 함께 올해 총 33명의 청년 취업자를 선정,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나주시 관내 거주하는 만18~39세 이하 청년으로 △전남 소재 중소기업 근무 △전·월세 주택(전세 시 대출금 5,000만원 이상) 거주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 지원이 가능하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 본인주택 소유자, LH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이미 주거 지원을 받는 등 자격제한 여부 심사 과정을 거친 뒤 최종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구비서류를

확인, 모집기간 내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부득이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하는 방법도 있다.

지원금은 매 분기 말 전·월세 납부내역 및 주민등록주소, 중소기업 근무여부 등을 확인 후 지급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오는 3월 개소 예정인 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들이 미래 주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정책 발굴과 의견 수렴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전했다.

나주=김도현 기자

영광군, 2020년 산림소득사업 임업인 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1월 29일 영광산림박물관 전시실에서 임업인 및 임업후계자 80명을 대상으로 ‘2020

년 산림소득사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산림소득사업을 신

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2020년 산림소득사업 추진 계획과 2021년 농림사업 신청을 위한 사업 신청방법을 안내했다.

또한 작목반원들의 적극적인 임산물 재배교육 및 기술지도 참여와 판로개척을 통하여 임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을 창출하고 있는 우수사례도 발표됐다.

영광군은 교육을 통하여 2020년에 산림소득사업 예산 4억 5천만 원을 확보해 표고재배 배지, 임산물 포장재, 관정, 임산물 부직포, 전동 잔디 예초기, 산림용 유기질 비료 등 총 6개 분야 사업을 지원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또한 2021년 산림소득 사업 신청자는 오는 2월 21일까지 신청서(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견적서 포함)를 작성하여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350-5585) 또는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고 2020년도 산림소득사업 신청자(2019년에 사업신청 완료한 임업인)는 오는 1월 31일까지 군청을 방문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고 보조금 지원 신청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 참석자들은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어 좋았다”며 큰 반응을 보였다.

영광=서희권 기자

곡성군, 사과 동계 전정 노하우 교육 실시



곡성군이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사과 동계전정 현장교육을 28일 실시했다고 밝혔다.

현장교육을 위해 곡성군은 충북 충주 문성호 사과 농업마이스터를 강사로 초빙했다. 교육생들은 이

자리에서 사과 수형별 정지 및 전정 시연, 시기별 사과 병해충 방제법, 사과나무 동계관리 및 하계관리, 요령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았다.

곡성군사과영농조합법인 김선업 대표는 “이번 전정교육을 통해 사과 수형별로 효율적인 동계 전정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현장교육을 통해 사과 재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